

배포일시	2010. 11. 25.(목) 11:00 (총10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구기상대	담당자	대장 이동한
		전화번호	053-952-0366

12월 기상특성과 기상재해(대구·경북)

-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지방 중심으로 대설
- 겨울 가뭄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주의
- 강풍·풍랑,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 농작물 피해 주의

□ 12월의 기상 특성

- 12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한파가 찾아오기도 함.
-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옵니다.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풍과 풍랑이 발생하고, 동해상으로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너울이 발생하기도 함.

□ 12월의 대표적 기상 재해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등 교통 장애, 시설물 피해 등을 유발함. 12월 평균 눈 일수는 상주와 문경이 4.0일, 안동과 영주가 3.9일, 봉화 3.8일, 구미 3.3일 순임. 2001년 12월 3일에 안동에 신적설 10.9cm를 비롯하여 대구와 경북지역에 2~11cm의 눈이 내려 교통 두절, 빙판길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있었음.

○ 한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2005년 12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31일 중 27일이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으며, 이중 24일이 평년보다 2℃ 이상 낮아 한파가 지속되었음. 특히, 2005년 12월 18일은 봉화 -19.3℃, 의성 -19.0℃, 안동 -15.8℃, 문경 -15.6℃, 상주 -13.8℃ 등 경북 대부분의 지방에서 12월 최저기온 최저 극값을 기록하여 동사,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있었음.

○ 강풍, 풍랑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동해상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풍랑이 발생함. 2005년 12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일 최대순간 풍속이 영주 16.8㎧, 영덕 14.6㎧, 울진 14.1㎧, 포항 13.2㎧ 등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 풍랑이 일어 선박 3척이 좌초되는 피해가 있었음.

○ 가뭄, 건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경상북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겨울철 가뭄이 나타남. 이로 인해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2005년 12월은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고, 구미, 상주, 영양 등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음.

※ 첨부 : 12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3-952-0366, <http://www.kma.go.kr>



12월 기상특성과 재해 정보(대구경북)

- 대설, 강풍, 풍랑. 겨울 가뭄으로 인한 화재 주의, 한파로 인한 건강관리, 농작물 피해 주의 -

대구기상대
2010년 11월 25일 11시 발표

□ 12월의 기상 특성

- 12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대륙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하면서 한파가 찾아오기도 함.
-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옵니다.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풍과 풍랑이 발생하고, 동해상으로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너울이 발생하기도 함.

□ 12월의 대표적 기상 재해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소백산맥 인근 지역과 경북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결빙 등 교통 장애, 시설물 피해 등을 유발함. 12월 평균 눈 일수는 상주와 문경이 4.0일, 안동과 영주가 3.9일, 봉화 3.8일, 구미 3.3일 순임. 2001년 12월 3일에 안동에 신적설 10.9cm를 비롯하여 대구와 경북지역에 2~11cm의 눈이 내려 교통 두절, 빙판길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있었음.

표 1. 지점별 12월(평균) 눈 일수

(단위 : 일)

지 점	상주	문경	안동	영주	봉화	구미	의성	영천	대구	포항	영덕	울진
눈일수	4.0	4.0	3.9	3.9	3.8	3.3	2.9	2.8	2.6	1.3	1.3	1.1

○ 한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2005년 12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 31일 중 27일이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으며, 이중 24일이 평년보다 2℃ 이상 낮아 한파가 지속되었음. 특히, 2005년 12월 18일은 봉화 -19.3℃, 의성 -19.0℃, 안동 -15.8℃, 문경 -15.6℃, 상주 -13.8℃ 등 경북 대부분의 지방에서 12월 최저기온 최저 극값을 기록하여 동사,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있었음.

표 2. 12월 기온 최저 순위(1973~2009년)

(단위 : °C)

최저 순위	1	2	3	4	5
평균기온	-1.9(2005년)	-1.4(1980년)	-1.2(1973년)	-1.1(1985년)	0.0(1995년, 1983년)
최고기온	3.5(2005년)	4.2(1980년)	4.6(1985년)	5.0(1973년)	6.0(1974년)
최저기온	-6.9(2005년)	-6.8(1973년)	-6.0(1980년)	-5.9(1985년)	-5.5(1995년)

○ 강풍, 풍랑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동해상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풍랑이 발생함. 2005년 12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일 최대순간 풍속이 영주 16.8㎧, 영덕 14.6㎧, 울진 14.1㎧, 포항 13.2㎧ 등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 풍랑이 일어 선박 3척이 좌초되는 피해가 있었음.

○ 가뭄, 건조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경상북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겨울철 가뭄이 심. 이로 인해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특히, 2005년 12월은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고, 구미, 상주, 영양 등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음.

표 3. 대구·경북 12월 강수량 최저 순위

최저 순위	1	2	3	4	5
강수량(mm)	1.3(1995년)	2.5(1999년)	2.7(2005년)	3.0(1973년)	4.3(2000년)

○ 황사

황사는 주로 봄철인 3~5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중국과 몽골 사막지역이 건조하여 겨울철인 12~2월에도 황사가 발생하고 있음.

표 4. 대구·경북 12월 황사 발생일수(1973~2009년)

연도	1976	2001	2007	2008	2009
황사 발생일수	1	2	1	2	3

※ 붙임 : 12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12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대구기상대

1. 12월 지역별 평년 기후값 및 극값

□ 기후 평년값 (12월)

평균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2.9	4.0	5.5	1.9	5.2	0.8	1.9	4.6	0.3	2.3
중 순	1.3	2.4	3.8	0.5	3.3	-0.8	0.3	2.9	-1.3	0.9
하 순	0.2	1.3	2.9	-0.8	2.5	-2.3	-1.0	1.9	-2.7	-0.3
평 균	1.5	2.6	4.1	0.5	3.7	-0.8	0.4	3.1	-1.2	1.0

최저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2.2	-0.8	1.2	-3.3	0.5	-4.7	-3.2	-0.4	-6.0	-3.4
중 순	-3.6	-2.0	-0.3	-4.6	-1.1	-6.1	-4.4	-1.7	-7.7	-4.5
하 순	-4.8	-3.2	-1.2	-5.8	-2.0	-7.8	-5.8	-2.7	-8.9	-5.8
평 균	-3.5	-2.0	-0.1	-4.6	-0.9	-6.2	-4.5	-1.6	-7.5	-4.6

최고기온

단위 : °C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9.1	9.7	10.8	8.3	10.5	7.0	7.6	10.4	8.6	9.3
중 순	7.2	7.8	8.9	6.4	8.8	5.1	5.5	8.4	6.7	7.4
하 순	6.1	6.7	8.1	5.2	7.8	3.8	4.4	7.4	5.5	6.3
평 균	7.5	8.1	9.3	6.6	9.0	5.3	5.8	8.7	6.9	7.7

강수량

단위 : mm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8.6	6.4	8.1	7.4	13.0	8.3	9.1	11.0	7.4	6.6
중 순	5.4	3.4	6.9	3.7	9.1	5.4	6.0	5.8	4.1	3.9
하 순	7.8	5.4	11.2	5.4	15.7	5.5	6.5	10.6	5.1	5.0
합 계	21.8	15.2	26.2	16.5	37.8	19.2	21.6	27.4	16.6	15.5

(평년기간 : 대구, 포항, 울진(1971~2000년), 구미,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1973~2000년))

□ 계절 기후 평년값

구 분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첫서리	평년	10.30	11.24	10.22	11.04	10.18	10.25	11.08	10.15	10.24
	2009년	11.23	12.24	11.04	11.03	-	-	-	-	-
첫얼음	평년	11.08	11.15	10.29	11.09	10.24	10.29	11.06	10.22	10.29
	2009년	11.03	11.03	11.02	11.02	-	-	-	-	-
첫 눈	평년	11.30	12.20	11.29	12.13	11.24	11.24	12.17	11.27	12.02
	2009년	12.20	2010.01.04	12.05	11.02	-	-	-	-	-

□ 12월 일강수량(m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91.12.25	50.8	1976.12.05	45.1	1991.12.27	43.0	1987.12.06	40.1	1978.12.10	39.0
안동	1997.12.06	32.7	1992.12.07	23.3	1996.12.04	22.2	1986.12.18	20.0	2002.12.04	16.0
상주	2009.12.10	20.5	2004.12.04	16.5	2003.12.06	11.5	2002.12.04	9.5	2002.12.03	9.5
포항	1961.12.03	84.4	1989.12.24	54.9	1952.12.09	52.9	1957.12.12	48.6	1997.12.06	36.5
대구	1957.12.12	53.0	1934.12.31	39.4	1997.12.06	32.1	1912.12.18	32.0	1920.12.02	31.3
봉화	1997.12.06	24.0	1996.12.04	19.5	2004.12.04	19.0	2004.12.15	17.5	2009.12.10	15.5
영주	1997.12.06	43.0	1986.12.18	22.6	1979.12.19	22.2	2009.12.10	22.0	1996.12.04	20.5
문경	1997.12.06	36.5	2009.12.10	24.0	1976.12.16	23.3	1986.12.18	22.4	1979.12.19	21.2
영덕	1976.12.05	49.2	1991.12.25	47.3	1997.12.06	33.5	1986.12.18	33.0	1997.12.21	29.0
의성	1997.12.06	31.0	1976.12.16	21.0	1986.12.18	19.6	1991.12.25	19.0	2007.12.28	17.5
구미	1997.12.06	32.5	1991.12.25	26.6	2009.12.10	23.0	1975.12.04	21.1	2004.12.04	19.0
영천	1997.12.06	28.5	1991.12.25	25.1	1986.12.18	24.5	2004.12.04	21.5	1996.12.04	20.0

□ 12월 최심신적설(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울진	1983.12.30	21.8	1978.12.20	14.1	1978.12.19	10.3	2006.12.17	9.4	2001.12.25	9.3
안동	2001.12.03	10.9	1976.12.08	7.6	1985.12.01	7.0	2001.12.25	6.6	2000.12.25	4.9
상주	2005.12.21	3.5	2005.12.04	1.5	2007.12.31	1.3	2007.12.07	1.0	2005.12.18	1.0
포항	1987.12.06	8.7	1960.12.19	6.0	2001.12.25	1.8	1976.12.10	1.4	1983.12.30	1.1
대구	1952.12.09	23.5	1985.12.22	6.0	1949.12.24	5.7	1951.12.14	5.1	1993.12.03	5.0
봉화	2001.12.25	18.3	1999.12.24	13.8	1996.12.22	8.6	2000.12.23	7.0	1990.12.25	6.8
영주	1999.12.24	10.1	2000.12.23	8.0	1985.12.22	6.2	1977.12.01	5.9	1995.12.28	5.6
문경	1974.12.17	12.5	1990.12.22	12.3	2001.12.03	9.3	1979.12.26	8.0	1996.12.04	7.8
영덕	1983.12.30	9.2	1987.12.06	5.2	1976.12.08	3.2	1978.12.19	2.3	1978.12.20	1.2
의성	2001.12.03	9.7	1983.12.30	7.7	1980.12.23	6.5	1985.12.22	5.7	1989.12.24	5.0
구미	1974.12.17	13.7	2001.12.03	7.0	1997.12.11	6.4	1989.12.24	5.9	1985.12.22	5.7
영천	1993.12.03	5.3	1980.12.22	4.6	1989.12.24	3.4	2005.12.04	3.2	2001.12.03	3.2

□ 12월 최심적설(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78.12.20	24.1	1978.12.21	22.3	1983.12.30	22.2	1983.12.31	21.7	1978.12.22	12.4
안동	2001.12.04	10.9	2001.12.03	10.9	1976.12.08	7.6	1985.12.02	7.2	1985.12.01	7.0
상주	2005.12.21	3.5	2005.12.04	1.5	2007.12.31	1.3	2007.12.07	1.0	2005.12.23	1.0
포항	1987.12.06	8.7	1959.12.20	7.4	2001.12.25	1.8	1976.12.10	1.4	1983.12.30	1.1
대구	1952.12.09	23.5	1952.12.10	22.1	1912.12.27	9.7	1952.12.11	9.5	1952.12.12	7.3
봉화	2001.12.25	18.3	1999.12.24	13.8	1999.12.25	13.2	2001.12.26	11.2	1990.12.02	10.3
영주	1999.12.24	10.1	1999.12.25	9.2	2000.12.23	8.0	1999.12.26	6.8	1985.12.22	6.2
문경	1974.12.17	12.5	1990.12.22	12.3	1990.12.23	11.5	1974.12.18	10.0	2001.12.04	9.3
영덕	1983.12.30	9.2	1983.12.31	7.3	1987.12.06	5.2	1978.12.20	3.5	1976.12.08	3.2
의성	2001.12.03	9.7	2001.12.04	9.2	1983.12.31	8.3	1983.12.30	7.7	1980.12.23	6.5
구미	1974.12.18	14.3	1974.12.17	13.7	1974.12.19	7.2	2001.12.03	7.0	2001.12.04	6.8
영천	1993.12.03	5.3	1980.12.22	4.6	1980.12.23	4.4	1989.12.24	3.4	2005.12.04	3.2

□ 12월 일최대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90.12.02	25.7	1990.12.26	20.3	1983.12.11	18.7	1978.12.01	18.5	1980.12.13	17.7
안동	1992.12.13	12.5	1987.12.01	12.2	1996.12.22	11.8	1995.12.24	11.7	1994.12.02	11.7
상주	2005.12.17	11.8	2008.12.25	11.0	2006.12.28	10.9	2003.12.19	10.9	2003.12.17	9.6
포항	1952.12.09	27.7	1953.12.08	22.0	1956.12.11	20.0	1949.12.05	20.0	1956.12.17	17.3
대구	1952.12.02	21.8	1916.12.27	20.4	1946.12.09	18.3	1981.12.01	18.0	1956.12.04	18.0
봉화	1999.12.10	10.0	2000.12.11	9.6	1993.12.22	9.3	1993.12.17	9.1	1999.12.18	8.7
영주	1997.12.10	18.7	1976.12.26	16.5	1997.12.09	16.2	1984.12.18	16.0	1985.12.09	15.5
문경	1993.12.17	12.5	1976.12.18	12.5	1999.12.06	12.2	1973.12.21	12.0	1993.12.22	11.3
영덕	1972.12.30	18.0	1974.12.02	17.5	2000.12.25	15.5	1975.12.16	15.0	2000.12.19	14.6
의성	1990.12.22	11.5	1990.12.01	11.5	1990.12.26	11.0	2000.12.25	10.5	1973.12.21	10.5
구미	1976.12.08	15.0	1976.12.18	14.5	1973.12.21	14.5	1990.12.26	14.0	1978.12.01	13.5
영천	2000.12.25	13.0	1987.12.30	12.5	1988.12.09	12.0	1988.12.05	12.0	1987.12.16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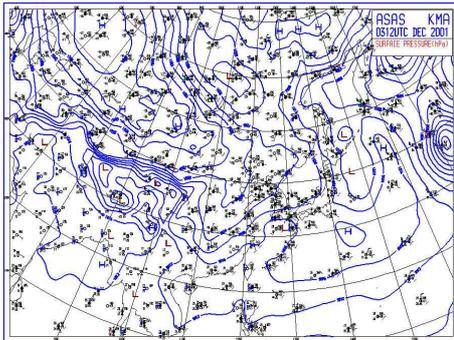
□ 12월 일최대순간풍속(m/s) 극값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90.12.02	43.0	1997.12.02	32.5	1990.12.26	31.6	1992.12.21	30.0	1978.12.01	29.0
안동	1985.12.30	23.5	1983.12.10	23.0	1990.12.25	22.5	1996.12.22	22.1	1990.12.22	22.0
상주	2006.12.28	21.0	2003.12.19	19.4	2007.12.31	18.5	2002.12.25	18.5	2005.12.17	18.4
포항	1977.12.01	29.0	1972.12.23	26.2	1990.12.26	23.0	2009.12.05	22.7	1990.12.02	22.1
대구	1980.12.28	27.5	1980.12.03	25.0	1966.12.26	24.0	1980.12.27	23.9	1980.12.26	23.9
봉화	2008.12.05	18.1	1993.12.22	17.9	1993.12.17	17.4	1997.12.10	16.6	1993.12.16	16.3
영주	1997.12.10	28.6	1997.12.09	25.8	1992.12.23	23.2	1995.12.24	23.1	1997.12.11	22.2
문경	1992.12.13	20.8	1993.12.16	19.2	2009.12.05	18.9	1993.12.21	18.2	2003.12.07	17.7
영덕	2007.12.31	27.1	2003.12.19	22.7	2000.12.25	22.5	2005.12.12	21.2	2001.12.30	21.2
의성	1993.12.22	16.9	2007.12.30	16.3	2009.12.05	16.2	2005.12.12	16.2	2003.12.06	16.2
구미	1993.12.26	16.7	2003.12.20	16.5	2009.12.19	16.4	1993.12.16	16.3	1993.12.21	16.0
영천	2008.12.25	25.9	2007.12.30	17.1	2004.12.05	17.0	2006.12.28	16.7	2000.12.25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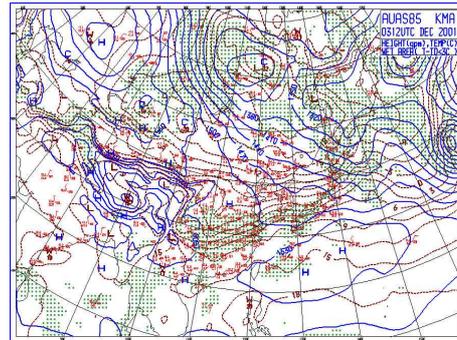
2. 기상재해 사례

□ 대설(2001.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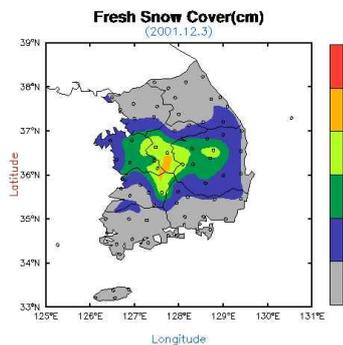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우리나라 남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충청도와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음.



2001. 12. 3. 21:00 지상일기도



2001. 12. 3. 21:00 850hPa 일기도



신적설 분포도(2001. 12. 3)

지역	신적설 (cm)	지역	신적설 (cm)
안동	10.9	영주	5.0
의성	9.7	대구	4.2
문경	9.3	영천	3.2
구미	7.0	봉화	2.4

지점별 신적설(2001. 12. 3)

○ 대설 피해 관련 기사

대구·경북 첫눈, 곳곳 교통정체

3일 오후 첫눈이 내리면서 대구·경북지역에 발령됐던 대설주의보가 4일 새벽2시를 전후해 눈이 그치면서 4시쯤 해제됐다.

이날 경북지역은 곳곳에서 교통이 두절되고 일부 구간 도로는 밤 사이 빙판으로 변해 사고가 잇따랐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의성의 경우 인근 국도, 지방도가 얼어 의성읍~점곡 구간 고갯길에 얼어 운전자들이 우회했고, 경주도 현곡~고경(영천) 사이 남사재 도로가 얼어 교통이 통제됐다.

이번 눈으로 4일 새벽 0시40분쯤 영천에서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끌어져 1명이 숨지는 등 고속도로에서만 15건의 사고로 16명이 다치고 교통정체도 이어졌다.

대구지역은 대설주의보와 함께 교통이 통제됐던 동구 팔공CC 입구에서 중대초소까지 5km 구간과 중대초소에서 대왕재까지 2km 구간의 팔공산 순환도로, 헐티재 등 모두 7곳이 4일 새벽 5시를 기해 통행이 재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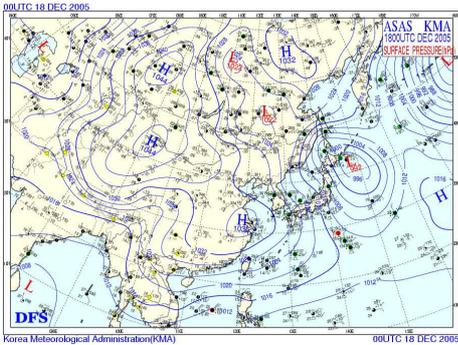
지역별 적설량은 안동이 10.9cm를 기록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으며 대구가 4.2cm, 문경 9.3cm, 의성 9.7cm, 구미 7cm, 영주 5cm, 영천 3.2cm를 기록했다.

대구기상대는 "밤 사이 대구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 도로 결빙은 없었다"며 "지난해 보다 첫눈이 22일 빨리 내렸으며 첫눈으로 이렇게 많은 적설량을 기록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눈 때문에 대구공화에는 3, 4일 미들동만 2평의 여객기가 무더기 결항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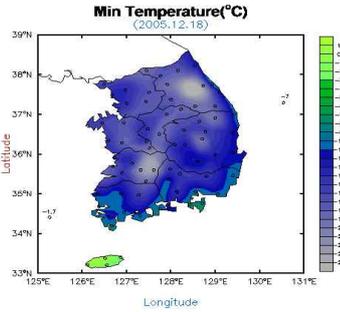
2001. 12. 4. 매일신문

□ 한파(200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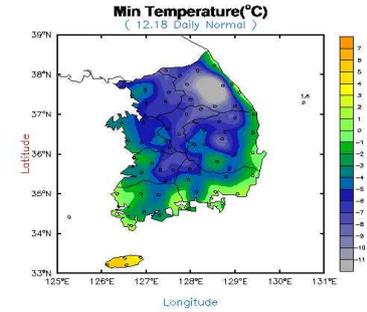
2005년 12월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아 31일 중 27일이 평년보다 기온이 낮았으며, 24일이 평년보다 2℃ 이상 낮아 한파가 지속되었음.



2005.12.18. 09:00 지상일기도



일 최저기온 분포(2005.12.18)



일 최저기온 분포(평년.12.18)

○ 지점별 12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단위 : ℃)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울진	1976.12.27	-13.8	1973.12.24	-13.0	1980.12.13	-11.8	1976.12.26	-11.8	1980.12.29	-11.2
안동	1973.12.25	-16.0	1983.12.26	-15.9	2005.12.18	-15.8	1976.12.29	-15.2	1973.12.24	-15.0
상주	2009.12.29	-13.8	2005.12.18	-13.6	2005.12.17	-12.9	2006.12.29	-12.5	2008.12.06	-11.2
포항	1976.12.27	-13.1	1973.12.24	-12.9	1967.12.30	-12.3	1965.12.17	-12.2	2005.12.18	-11.6
대구	1917.12.27	-15.2	1973.12.24	-14.0	1916.12.27	-13.7	1916.12.26	-13.7	1976.12.27	-13.3
봉화	1999.12.26	-20.2	1990.12.27	-19.8	2001.12.29	-19.5	2005.12.18	-19.3	2001.12.31	-19.2
영주	1973.12.24	-20.0	1973.12.26	-18.9	1973.12.25	-18.9	1990.12.27	-18.4	1976.12.29	-17.9
문경	1973.12.24	-16.7	1973.12.25	-16.6	2005.12.18	-15.6	1976.12.27	-15.5	1983.12.26	-14.9
영덕	1976.12.27	-13.8	1973.12.24	-13.7	1976.12.26	-12.0	2005.12.18	-11.8	1976.12.28	-11.3
의성	2005.12.18	-19.0	1983.12.31	-18.4	1983.12.25	-18.3	1983.12.26	-18.2	1995.12.26	-17.5
구미	1973.12.24	-15.2	1983.12.26	-14.2	1973.12.25	-14.1	1976.12.27	-13.5	1983.12.25	-13.2
영천	2005.12.20	-14.5	1983.12.26	-14.2	1973.12.24	-14.2	2009.12.29	-13.6	1983.12.24	-13.5

○ 한파 관련 기사

'영하 11도 한파' 동사 잇따라

기사 입력시간 : 2005-12-19 19:26

연말을 앞두고 추운 날씨에 술에 취해 동사(凍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11.1도를 기록했던 지난 18일 오전 8시10분께 대구시 수성구 옥수동 모 레미콘 회사 사무실 앞에서 김모(46)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전날 밤 10시께 술을 마시러 간다며 외출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채 집을 찾지 못하고 잠을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께도 대구시 서구 내당동 S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조모(76여)씨가 얼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통상적으로 112나 119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서 현장에 출동, 주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 정도에 따라 귀가시키거나 병원에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112로 신고할 경우 대부분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이를 다시 이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119신고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찰과 소방 관계자의 말이다.

전문의를들은 겨울철 음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알코올에 대외의 찬 공기로 인한 열의 이동이 빨라져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재경기자 yellow@idaegu.com

2005. 12. 19. 대구일보

동장군 '칭칭' 수도계량기 '평평'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극심한 한파가 몰아쳤던 17일 오전부터 18일 까지 대구에서는 달서구 3건, 달성군 6건, 수성구 2건 등 모두 17건의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일어났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영하 6℃이하의 추운 날씨가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 동파 피해가 급증한다"며 "주먹과 복도식 아파트에서 동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올 겨울 추운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달 들어 대구에서 발생한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모두 44건을 기록, 동파 사고가 전혀 없었던 지난해 같은 달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동절기 동파 사고는 2000년 5천473건, 2001년 164건, 2002년 1천111건, 2003년 2천840건, 2004년 778건 등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2일부터 다시 추워져 24일까지 영하 3~6℃ 이하의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동파 피해가 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도계량기 보호용 내부를 원통, 현미표, 솜 등 보온재로 채우고 뚜껑을 항상 닫아두는 게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편 18일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났다. 경북 봉화의 최저기온이 -19.3℃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구 -11.1℃, 의성 -19℃, 안동 -15.8℃, 포항 -11.6℃ 등의 분포를 보이는 등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관측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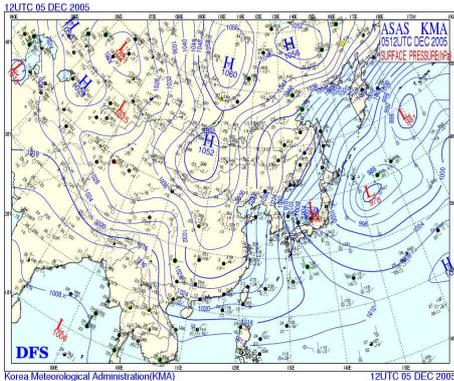
대구기상대 관계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20일 낮부터 점차 날씨가 풀려 대구 최고기온이 7℃, 김천 6℃, 의성 5℃ 등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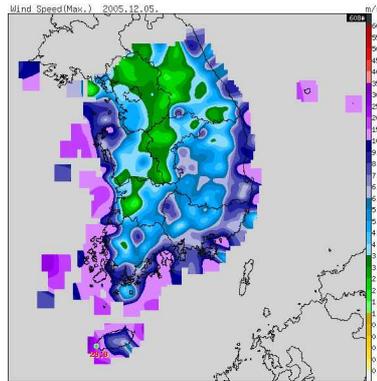
2005. 12. 19. 매일신문

□ 강풍, 풍랑(2005. 12. 5~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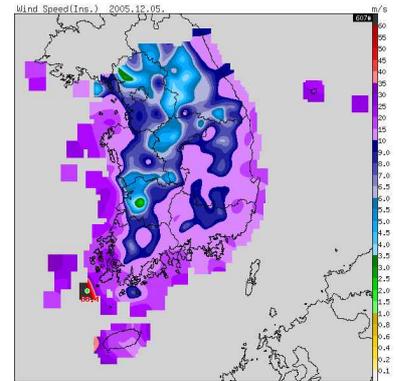
동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었음. 특히, 동해상에는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강풍과 함께 풍랑이 매우 높게 일었음.



지상일기도(2005.12.5.21시)



일 최대 풍속(2005.12.5)



일 최대순간 풍속(2005.12.5)

일자	지 점	울진	영덕	포항	영주	문경	영천
12. 5	일 최대 풍속(m/s)	7.2	10.2	7.1	9.7	6.3	6.6
	일 최대 순간 풍속(m/s)	14.1	14.6	13.2	16.8	12.0	10.8
12. 6	일 최대 풍속(m/s)	8.4	8.6	5.5	9.5	7.3	6.4
	일 최대 순간 풍속(m/s)	12.8	12.6	10.1	15.0	11.1	10.3

지점별 관측 자료(2005. 12. 5~12. 6)

○ 강풍, 풍랑 피해 관련 기사



6일 새벽 높은 파도와 강풍이 경북 동해안을 강타하면서 경북 동해안 포구에서 어선 18척이 좌초되거나 침몰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에 영덕군 강구항에 정박 중이던 92개급 통발어선 제7범양호 등 어선 3척이 파도에 휩쓸려 강구외항으로 떠밀려가 오폭간(해수욕장)에 좌초됐다.

사고는 선박들을 부두에 묶어 놓은 로프가 높은 파도를 견디지 못해 풀리면서 발생했으며 함께 표류하던 49급 채낚기어선 북성호 등 5척은 불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 당시 동해남부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 동해남부 연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다행히 선원들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해경은 번시질에 TTP(일명 삼발인) 5개를 설치해 좌초된 어선들을 묶어 놓는 등 응급조치를 했으나 기상상태가 호전돼야 어선들을 인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오전까지 포항, 울진, 영덕 등의 소해 포구에 정박 중이던 01~1급 소형어선 15척이 침몰 또는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포항해경은 밝혔다.

(연합)

2005. 12. 6. 영남일보

높은 파도 선박 3척 좌초

동해상의 높은 파도로 인해 울진, 영덕지역의 해안도로에 모래와 폐기물 등이 밀려와 통행이 통제되거나 소형 선박이 침몰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6일 새벽 1시쯤 울진군 근남면 진북리 해안도로에 모래 등이 높은 파도에 밀려들며 새벽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중단됐다. 또 이날 새벽 3시쯤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공세항에 정박 중이던 유모(38) 씨의 0.82급 어선 등 11미만의 소형 어선 4척이 침몰했으며 0시20분쯤에는 6m가량의 높은 파도에 강구항 일대에 계류 중인 7범양호(92) 등 7척이 이탈돼 3척이 강구외항 오폭간 간이해수욕장 백사장에 좌초됐다.

한편 울진기상대 측은 "동해 중부해상에서부터 강풍을 동반한 높이 4.5m의 높은 파도가 밀려와 울진 연안에는 4일 오전 11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6일 오후까지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진 취미기자 ihwang@msnet.co.kr 포항 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2005. 12. 6. 매일신문

□ 겨울 가뭄, 산불(2005. 12.)

2005년 12월은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대구·경북 월 강수량이 2.7mm로 1973년 이래 세번째로 적었음. 겨울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였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였음.

○ 대구·경북 12월 강수량 최저 순위

최저 순위	1	2	3	4	5
강수량(mm)	1.3(1995년)	2.5(1999년)	2.7(2005년)	3.0(1973년)	4.3(2000년)

○ 지점별 실효습도

지점	12월 12일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울진	23.7	22.9	22.6	22.5	24.8	23.5	24.4
대구	35.2	35	34	36.4	42.1	37.4	35.7
포항	30.1	29.8	29	30.5	35.5	31.9	31.1
영덕	29.9	29.2	28.6	29.8	34.5	31	31.8
지점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12월 29일	12월 30일
울진	28.9	30.6	27.4	24.1	25.4	31.7	34.3
대구	37.1	37.1	34.4	31.4	28	28.2	33.8
포항	31.5	30.9	27.5	24.8	22	21.5	27
영덕	33.4	34.7	30.9	27.7	23.8	25.4	30.8

○ 가뭄, 산불 피해 관련 기사

겨울가뭄 특작작물 피해 속출



호남과 충청도 지역의 폭설피해가 심각한 반면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은 건조주의보가 계속 되는 등 겨울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여름 식수난에 시달렸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의 식수원인 진전지가 또 다시 취수구가 드러나는 등 탈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미용선기자 photokid@kmaeil.com

경북동해안지역에 매어낸 겨울가뭄으로 특작작물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가 하면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상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포항기상대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지난해에는 39.4mm의 강수량을 기록한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강수량이 0mm를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알기, 시금치, 부추 등 특작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심각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일대의 알기 재배농가들은 지하수 고갈로 물공급이 중단되면서 특작작물의 고사피해가 나타나자 포항시 등에 대책마련을 촉구,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가 관할 농업용저수지인 용연지의 물을 긴급 방류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중해농협 알기작목반 남창수 반장은 "용연지 물이 긴급 방류되면서 지하수 공급이 재개했으나 한달내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고 용연지 물이 방류되지 않을 경우 시설재배중인 알기에 물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중무휴로 물을 공급해야 하는 생활용수 저수지의 저수율도 극감, 12월중으로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년초부터 식수공급에도 차질이 예고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지의 경우 최근 저수율이 50%대로 떨어지면서 오천읍과 동해면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차질을 빚자 인근 오어지의 물을 긴급방류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90% 이상이며 문제는 없지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저수율이 최근 극감하고 있어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년초부터는 식수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용선·황태진기자

2005. 12. 27 경북매일신문

강추위...피해 속출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대구경북지역 곳곳에서 산불 및 가스폭발 등 화재사고가 잇따랐으며 무려 영하 19도이상까지 떨어진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수도관이 얼고 계량이 동파사고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8일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경북 봉화의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9.3도로 떨어져 최저를 기록한데 이어 포항 -11.6도, 울진 -10.8도, 안동 -15.9도, 상주 -13.6도, 대구 -11.1도를 기록하는 등 대구경북 전역에서 강추위가 맹위를 떨쳤다.

이런 추위는 강풍을 동반함으로써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17일 영양군 수비면 발리리 '요골'에서 2ha, 같은날 구미시 형곡동 우방3차 뒷마산 '금오산 줄기'에서, 상주시 은척면 장안리 속칭 '작약산'에서 0.3ha 등의 피해를 냈다.

그러나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진화에 필요한 저수지 물이 모두 얼어 버려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18일 현재 경북의 산불위험지수는 위험 경계수준인 65에 달해 산불비상상황이다.

여기에도 지난 16일 구미시 고아읍 파산리 돌파재기 제조공장 3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가 폭발, 작업자 6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기누전에 의한 주택화재도 잇따라, 17일 밤 성주군 월항면 안포4리 마을회관에서 불이나 성모(여·35)씨 아들 도모(11)군 등 2명이 숨지고 25평가량의 건물을 태웠다.

17일 오전 6시57분에도 대구시 서구 평리4동 노모(48)씨의 집에서 불이나 나씨의 아들(28)이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최고 영하 19.3도까지 내려간 경북북부지역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수도관 결빙 및 계량이 동파사고가 관계기관에 잇따랐으며 이로인해 상당수 주민들이 수돗물을 제때 조달받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기상대는 이번 추위는 19일 오후부터 점차 풀리겠으나 오는 21일째부터는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강추위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5.12. 19. 경북매일신문

주말 도내 산불 3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도내에 산불이 잇따랐다. 17일 밤 9시 30분쯤 상주 은척면 장안리 속칭 '작약산' 6부능선 부근에서 산불이 발생, 임야 0.3ha가량을 태웠다. 또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영양 발리리 변모(59)씨 집 뒷산에서 불이 나 임야 2ha와 창고 건물 등을 태우고 18일 오전 8시30분쯤 꺼졌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쯤에는 포항 용흥동 연화재 인근 마산에서 불이 나 임야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했다.

2005. 12. 19. 매일신문